

	보도자료	2026. 7. 7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농업관측팀장	김동현	☎ 760-727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'26~'27년산 제주 월동채소 작황관측 확대 추진

- 주요 월동채소 마늘·양파 추가...6개 품목으로 관측 확대 -
- 생육부터 수확·유통까지 전 주기 모니터링...생산예측 정보 제공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'26~'27년산 제주 주요 월동채소 작황관측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6개 품목으로 확대해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.
 - 농업디지털센터는 제주 주요 월동채소의 안정적인 생산과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작황관측을 추진하고 있다.
 - 2024년 당근과 월동무를 시작으로 지난해 양배추·브로콜리를 추가했으며, 올해부터는 마늘과 양파를 포함해 총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육부터 수확·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쳐 모니터링한다.
- 관측은 7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품목별로 농업인, 농협, 유통업체, 종자업체, 생산자단체, 연구·지도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20~30명 내외를 모니터링요원으로 구성해 월 1회 이상 현장 조사와 전화 모니터링을 병행한다.
 - 7월부터 10월까지 파종(정식), 생육상황, 병해충 발생, 기상 영향, 생산 예상량 등을 조사하고,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수확률, 저장 예상량, 가격 및 유통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·분석해 생산예측과 관측정보를 제공한다.
 - 특히 전국 단위 수급 전망 중심의 관측정보와 달리 제주 주

산지의 생육 변화와 기상·재해 영향, 생산·유통 동향을 현장 중심으로 조사·분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측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.

- 수집된 정보는 행정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등에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기초자료로 활용돼 제주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.
-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기후변화로 작황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 “앞으로도 제주 주요 월동채소 작황관측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농업인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산예측 정보를 제공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